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강화군 전격 방문

불합리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강화군도 개선해 줄 것 등 건의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8일 강화군을 전격 방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유 장관에게 강화군도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 등 다양한 정책들을 건의했다. (사진=강화군)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8일 강화군을 전격 방문했다. 이날 군은 유 장관에게 강화군도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 등 다양한 정책들을 건의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문체부가 지난 1월 4일 도입을 발표한 정책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관광기반 시설(5만~30만㎡)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방식도 완화해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 거친 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불합리하게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어 인구감소 위험지역인 강화군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강화군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고 배준영 의원은 지난달 21일 유 장관을 만나 강화군에 불합리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유 장관의 전격 강화 방문이 성사됐고 유 장관은 석모도와 교동도 등

강화군의 유명 관광개발 현장을 직접 살펴 면서 '소규모 관광단지' 활성화 및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군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강화군 내에서도 관광단지의 지정 규모가 현행 50만㎡ 이상에서 5만~30만㎡로 대폭 낮춰지게 되고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군수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강화군의 특성상 청장년층이

정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화군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유지남 기자

고독사 예방...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인천시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4대 추진 전략, 74개 사업 담야

인천시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2024년 인천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시행계획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망 강화 △생애 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예방·관리 수행체계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주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11개 단위과제, 74개 세부 사업을 담았다. 먼저 신 위험군 발굴을 위해 올해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고독사 위험군의 위험 정도 및 필요 서비스 판단을 위해 표준점검표를 활용한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

독사 위험군을 선별·관리한다. 특히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인지·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이다. 건강음료 및 반찬 배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 내 거점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 간의 관계망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시범 특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안부 확인·생활환경 개선 지원·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대상군을 확대해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 주기별 서비스도 연계·지원한다.

청년에게는 청년마을건강바우처 및 청년마을건강센터를 통한 정신 건강관리와 직무역량 향상·구직교육 고취를 위한 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수당'을 확대(월 40만원~50만원)하고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준을 완화(근로·사업소득 상한선 월 200만원~220만원 이하)한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고독사의 가장 높은 비중(71.1%)을 차지하는 연령대인 만큼 보건소·센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취업 지원과 평생교육·공동체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일상 돌봄서비스를 2개 구(시범사업)에서 9개 구·구로 확대 운영해 일상생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1만5574명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수당 증액, 맞춤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을 확대한다. 노년 위험군의 가장 힘든 점은 건강 문제(30.4%), 청소·세탁(11.5%), 외출 동행(8.4%) 등의 순인 것을 고려, 가사 지원·외출 동행 등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1만5574명에게 제공하고, 의료·건강관리·돌봄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영양죽지원, 방문의료, 복약지도, 낙상예방·치료 등)을 8개 구에서 10개 구로 확대 운영한다. 노인일자리 수당은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민에게 인천시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며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안테나

서구 '건설장비 안전사고 예방 장치' 설치

서구가 산업재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아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구에서 긴급보수 및 제작업 시 운용 중인 건설장비(굴착기)에 안전사고예방 장치(LED 라인)를 시범 설치했다. 구간 건설장비 사망사고 중 충돌 및 협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충돌위험 방지를 위한 방법 개정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관련해 서구는 사고의 주원인인 작업 반경 내 근로자와 보행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장치는 장비 주변 5m 이상 바닥 면에 라인 표시가 되는 LED 라인과 감지 거리 5m 이내 사물 확인 시 경고 안내 송출을 하는 초음파센서다. 서구는 건설장비 안전장치 시범 설치를 확대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보다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건설공사의 건설장비 투입 시 업체에서도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해 작업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서구는 근로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인천시 '가로수 지킴이 봉사자' 선발

인천시가 11월부터 22일까지 '시민참여형 가로수 지킴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시민참여형 가로수 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은 가로수 피해 및 병충해 발생 신고, 불법 광고물 제거, 가로 녹지 내 환경정화 등 시민과 함께 가로수를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가로수 환경보호 및 시민 인식개선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다. 수목 관리와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 있는 가족 및 단체, 시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구·구 가로수 지킴이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가입 시민에 한 해 1일 봉사활동 시간 2시간이 인정되며 연말에는 자원봉사 활동 우수기관(단체) 및 우수자를 선정해 가로수 지킴이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세철 시 녹지정책과장은 "올해 가로수 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인천보훈지청, 서·해·수·호 4행시 진행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이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의 날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해 서해수호사 추모캠페인을 진행한다. 온라인 추모관에서는 서해수호 55용사에게 추모의 글을 남기는 '추모메시지 남기기'와 '서·해·수·호' 네 글자를 두음으로 하는 '4행시 짓기'를 진행한다. 개설된 온라인 추모관은 QR코드로 자동 접속 가능하며 네이버 검색창에 '서해수호의 날 온라인 추모관' 검색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와 참전장병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정부기념일로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해당하며 올해 9회째를 맞이한다. 인천보훈지청 관계자는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55용사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인천시, 이음 텃밭 참여자 모집



인천시가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인천형 공동체 도시 텃밭인 '이음 텃밭'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음 텃밭'은 화확비료·농약·비닐이 없이 운영되는 3무(無) 자연 친화형 도시텃밭으로 지난 2021년 송도동 송도국제개발유한회사(NSIC) 소유 유휴지에 처음 조성된 이래 올해 운영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23개 단체 440여 명의 시민과 도시농업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1만4750㎡ 면적에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텃밭 330개소, 5명 이상 공동체로 참여하는 공동체 텃밭 17개소, 복지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어울림 텃밭 8개소 등 총 355개소를 조성해 체험용 토종텃밭·농·지역사회 기부를 위한 나눔 텃밭과 경관 작물 구역으로 운영한다. 김동현 기자



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40명 전원이 동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확충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사진=인천시의회)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촉구 결의안 가결

김명주 인천시의회 의원 발의
"기존 인천시 안으로 확정해야"

인천시의회 김명주(민주당, 서구6)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40명 전원이 동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확충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 광위)가 발표한 5호선 연장 노선을 폐기하고 기존 인천시의 안대로 원당역·블로역까지 모두 포함한 4개 역을 반영한 노선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인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대 광위가 수도권 신도시 중 광역철도가 건설되지 않은 인천 서구 구간에 대한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인천 북부권 종합 발전을 위한 핵심 철도망 구축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무시한 채 김포시의 입장만을 반영한 대 광위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 연장 사업 조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천시(안)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구 김단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명주 시의원은 "서울시와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는 30년 넘게 김단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그 피해를 김단지역의 주민들이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스스로 광역소각장 하나만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30년 넘게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있는 서구 김단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이 입은 매립지 피해보상이 없다"며 "정부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와 대 광위가 미래 도시계획을 반영해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한 목소리

인천 미추홀구의회
시의회와 정책 소통

미추홀구의회와 인천시의회는 7일 미추홀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수봉지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 이봉락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과 구의회 배상록 의장,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와 구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민의 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수봉지구 고도 제한은 지난 1984년 최초 제정된 이후 구민의 주거환경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해 많은 불편을 초래

고 있다. 특히 주변 환경이 노후화되고 빈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택재개발 사업도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인해 제한받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구의회는 지난 2016년 수봉지구 고도 제한이 타지역에 비해 소극적으로 완화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시 관계자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 자유공원 주변 등을 포함한 경관 고도지구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현재 관련 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드림캔버스 활용 '금요영화마당' 큰 호응

연수구, 구청 로비 송죽원서
'스머프 비밀의 숲' 영화 상영
봄 분위기 캠프닉 연출 '만족'

연수구가 8일 구청 로비 송죽원에서 지역 영유아와 구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드림캔버스'를 활용한 첫 금요영화마당으로 '스머프 비밀의 숲'을 상영했다. 지난해 인천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설치한 송죽원 535인치 LED전광판에서 블루레이급 고화질 영상으로 선보인 이번 금

요영화마당을 시작으로 상영회를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구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그늘막 텐트·빈백 소파 등을 설치하고 구민들이 봄 분위기에 맞는 캠프닉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금요영화마당을 시작으로 구는 송죽원 연수드림캔버스에서 오는 22일에도 '알라딘'을 상영할 예정이며 공연정보는 연수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연수구청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